



존경하는 한국농업경영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丙戌年) 한해가 지나가고, 2007년 희망찬 정해년(丁亥年)이 밝았습니다. 정해년을 맞이하여 돼지가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이 국가 경제는 물론 농업·농촌에 돌아가 한국농업에도 웃음꽃이 피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FTA협상을 비롯하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 조류독감,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문제 등 농민들에게 내·외적으로 힘든 한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가슴 따뜻한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려야 하는데, 한국정치가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시리고 아리게 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후반기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맡으며 보다 많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많은 농민들의 마음을 어우르고 삶을 보듬지 못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봅니다.

올 한해 역시 한·미 FTA 협상이라는 큰 산이 농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협상이전에 국내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마련 역시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 농업, 농촌과 관련된 정책이나 법률안 그리고 예산확보를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명확한 대책마련이 되지 않을 경우 협상타결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겠습니다.

2007년 새해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 속에서 지난 수십 년간 생명과 에너지의 공급원으로 묵묵히 그 사명을 다하며, 때로는 희생마저 감수했던 농어촌과 이제는 풍요와 번영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정해년(丁亥年) 돼지의 해인만큼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농업인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 갈 수 있는 한 해를 만드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보람 있는 결실을 거두길 바라며, 가정과 직장, 농촌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농어업, 농어촌은 지난 한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 FTA협상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격랑의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런 뜻에서 농어업특위는 변화하는 대내외적 여건에 맞추어 농업, 농촌기본법 개정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함께 식품이 농정의 핵심 분야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법의 명칭도 식품, 농업, 농촌기본법으로 정하기로 결의한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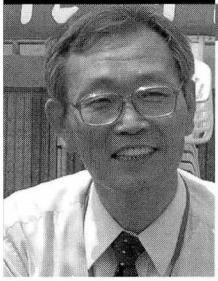
특히 도시민의 농어촌정주지원을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들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지역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농정을 농업만이 아닌 농촌, 그리고 식품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시대적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람과 시스템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필요한 인재로 양성됩니다. 농림부도 이점을 중시하고, 예산도 크게 늘리고, 방법도 혁신했지만, 이에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소기의 성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올해는 모든 기관, 단체, 학교, 조직이 나서서 농어민교육 혁신을 이루어 내 밝은 농어업, 농어촌을 건설하는데 앞장설 인력육성의 해, 그리고 이를 토대로 조직혁신, 시스템 개혁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해온 협치, 거버넌스 농정의 출발점이 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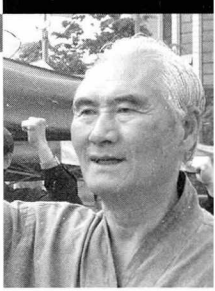


농민단체의 개혁과 단결을 통해 하나의 전농민적 조직 전망을 향하여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이의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해가 갈수록 농업·농촌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또 세대적으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고립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앞에 농민들의 힘이 작고 약해 보이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해 모든 농민단체들이 품목과 단체를 뛰어넘어 단결해 왔듯 희망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공동으로 투쟁하며 농민진영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안팎의 농업위기와 전선이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농민적 조직 전망을 그리고 공유하며 함께 준비해가는 것이 이 시대 농민조직들의 책무이자 필연적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품목, 부문, 계층, 성별 농민조직이 하나로 결집, 전농민적 대표조직, 가칭 전국농민연맹이나 연합을 굳건히 세우는 일이 관건이자 우선입니다. 그래야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농협 개혁도, 농업경영합리화나 지역농업교육 나아가 농민 간 이해조정이나 농정자문을 위한 농업회의소도 가능한 것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면서도 늘 주위의 것들과 조화롭게 위기를 돌파해 가야합니다. 당면한 농업위기에 대응하자면 무엇보다 올바른 농업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농업정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농업정책은 강력한 농민조직의 결집 없이는, 농민단체들의 과감한 개혁과 단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대신, 총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있는 상황에서 농민단체들의 개혁과 단결이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활동의 경험은 개별단체의 개별적 대응만으로 농업·농촌을 둘러싼 총체적 위기를 결코 극복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농민운동조직이 많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 지역, 품목, 부문, 계층을 넘어 모든 농민단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뭉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고, 대표성과 전문성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농민운동에 몸담아 온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절실한 고백이며 염원입니다.

차시환혼(借尸還魂) - 주검을 빌려 영혼을 찾는다 했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해 단결해 온 것처럼 서로의 처지를 더 많이 이해하며 더 많이 논의하고, 더 많이 실천하는 한해가 되도록 합시다. 그 길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 이를 통해 농업이 가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 도시와 농촌이 하나로 이어져 농업회생을 위한 희망의 거점들이 확대되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은 계속되는 농업개방의 공세 속에서도 각국의 고유한 농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애초에 지구상에 길은 없었지만 사람들이 함께 다니면 길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여럿이 꾸면 현실이 되듯 말입니다.





희망과 축복의 새 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한농연> 동지여러분!

새 해 영마루에 올라 힘찬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서 가파른 언덕을 함께 넘어왔던 지난 한 해를 잠시 되돌아봅시다. 광화문에서 종로거리에서, 서귀포 칠 십리 파도 속에서, 머나먼 미국 땅 와싱턴 그리고 시애틀에서, 마침내 눈보라치는 록키산맥 몬태나에서, 잊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할퀴 자국을 서로 쓰다듬어주면서 잡은 손 놓지 않고 달려온 동지들 모습이 다시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민족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평등으로 진보하는 실질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조국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동지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조국산하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거룩한 그 공덕은 민족의 진로를 알려주는 보이지 않는 탑이 되어 우리들 민중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동지들!

그러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미FTA가 얼마나 영터리인지, 얼마나 거짓인지, 나라의 경제와 민중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 광우병 소고기가 한국 축산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의 생명을 얼마나 무섭게 죽음으로 안내할 것인지, 그 실상이 날날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저들은 막무가내로 기어이 체결하려합니다. 국민 태반의 반대 가운데서 발버둥치고 있는 망국적 한미 FTA의 명줄을 반드시 끊어야겠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땅의 농민은 1만 년 민족사의 그 어느 한 순간도 빼놓지 않고 민족을 먹여 살려왔고 조국강토를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동지들!

사생결단 굳센 결의로 신발 끈 다시 조이고 머리띠 다시 묶읍시다.

살기 위하여, 민족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농민 노동자가 동맹하여 앞장섭시다. 온 민중이 힘차게 단결·투쟁합시다. 기필코 승리합시다. 승리를 기약하는 북 돼지 붉은 해가 솟았습니다. 가정마다 웃음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